

“위안부 피해 알리는 전시회 함께해요”

목포정명여중, 자유학기 프로젝트 일환

포스터· 종이 평화의 소녀상 만들어 전시

목포정명여자중학교는 지난달 1월 8일부터 자유학기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기” 전시회를 전남 도청 민원실 옆 윤선도관에서 3월 초까지 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자유학기 영어시간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영어 영상물 및 포스터를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자리로서 전남 도청의 협조를 통해 전시된다.

학생들이 할머니들의 자료를 직접 찾고 역사적으로 알려진 사실을 바탕으로 포스터와 종이평화의 소

녀상을 만들고 복지시설인 “나눔의 집”을 직접 디자인하여 모형으로 만들어 전시함으로써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전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전시는 일제 강점기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었던 내용을 책과 영상자료를 통해 배우고 직접 토론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한 전시로 앞으로 자유학년제 수업의 방향성을 제시 할 예정이다.

목포정명여자중학교 박형중 교장은 “학생들의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위치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초석이 된 좋은 기회였으며 통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실습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목포정명여자중학교 1학년 최은하 학생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의외로 왜곡된 정보가 많았는데 4개월간

영어시간을 이용해 역사를 바로알고 도 영어를 이용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험만을 위한 지식이 아닌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배우고 실천 할 수 있었으며 하루 빨리 일본정부가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그동안 상처받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환히 웃으시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전남교육청, Fun E teachers 연수 성료

<전문직학습공동체>

전남 전문직학습공동체 'Fun E teachers'가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새내기 교사부터 정년을 1년 앞둔 초·중등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편하고 편(fun)한 미래교육플랫폼 알아보기 직무연수'를 진행했다.

이 연수는 전남도교육청이 전문직학습공동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특수 분야 직무연수로, 전남 도내 영어교사 15명으로 구성된 'Fun E teachers' 전문직학습공동체가 선정됐다. 연수는 겨울방학을 이용해 이틀 동안 1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초·중등 교사들의 4차산업 시대 수업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편하고 편(fun)한 미래교육 플랫폼기반 수업에 특화된 내용들을 강의 및 실습, 워크숍 형태로 연수가 진행됐다.

연수과정은 최근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온라인 기반 학교 행정 간소화 및 학습 생활지도, 과정 중심평가 및 교실수업 개선을 핵심으로 교사들이 수업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으로 구성됐다. 대구 심인중 정성운 교사가 '영어수업, 이제 구글 클래스룸 기반 자유로운 온라인 교실 1, 2', 대구 심인고 홍진우 교사가 '웹기반 다양한 툴을 활용하는 미래형 교실'을 강의했다.

연수에 참여한 목포정명여자중학교 장원선 교사는 “교실 내 개별화수업 및 학생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과정평가 중심 교육에 고민이 많았는데, 실제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미래 교육 플랫폼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유익했다.”고 말했다. 또,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미래교육에 대해 고민을 함께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허성은 기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자유학년제 연계 프로그램' 참여 학교 모집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중학생들의 특기적성 개발 및 진로 탐색 지원을 위한 '자유학년제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교(30개 교)를 오는 13~21일 모집한다.

지난 12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 따르면 '자유학년제 연계 프로그램'은 ▲나를 찾아서(회관 방문형) ▲찾아가는 꿈키움(강

사 파견형) 등 2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은 상반기(4~7월), 하반기(9~12월)로 운영한다.

'나를 찾아서' 과정은 ▲드론 ▲캘리그래피 ▲도에 ▲네일아트 ▲독서토론 ▲K-pop 댄스 ▲창의수학&보드게임 ▲팝아트 등 8개 강좌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이 중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도움이 되는 강좌를 선택하고, 운영 기간 중

총 4회 회관을 방문하면 된다. 회관은 학생들이 원활하게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하며 체험준비물 등을 지원한다.

한편 '찾아가는 꿈키움' 과정은 ▲드론 ▲비폭력대화 ▲팝아트 등 3개 강좌로 구성된다. 그 중 1강좌를 학교에서 선택하며, 운영 기간 중 학교별 12회 운영한다. 회관에서는 학생들이 원활하게 진로체험

을 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로 강사를 파견하고 체험준비물 등을 지원한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최두섭 관장은 “우리 회관은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자유학년제 연계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학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광주시교육청,

미세먼지 점검 실시

광주시교육청이 신학기를 맞아 2월12일부터 3월31일까지 시교육청 주관 미세먼지 대응 자체점검단(간부 공무원 포함)과 모니터링단을 중심으로 '2020년 미세먼지 대응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합동점검의 목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을 막고 신학기 개학 전 미세먼지 차단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광주 시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샘플링 방식으로 선정된 120개교를 대상으로 불시에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조인호 기자

전남교육청, 신설 정책국장에 이용덕 교장 임명

최초 여성 국장 발탁...연공서열보다 역량 중심



전남도교육청이 13일, 2020년 3월 1일자 주요보직 임용 대상자 10명을 확정 발표했다.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은 오는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도교육청 정책국장에 이용덕 순천왕지초 교장을 전격 발탁·임용했다. 신임 이용덕 정책국장은 도교육청 개청 이래 최초의 여성국장으로, 교육감의 인사 기본방향인 역량 중심과 양성평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정책기획과장에는 김태문 교육연구정보원 전남교육정책연구소장

을 임용해 정책국의 정책·기획업무 추진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장에 정혜자 분청 혁신교육과장, 분청교육국 유·초등교육과장에 정종현 교원인사과 장학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에 이병산 학생교육원 교육연구관, 체육건강예술평과장에 김선치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관이 각각 임용됐다.

이와 함께 김성에 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장은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김완 교원인사과장은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도교육청의 이번 주요보직 임용은 혁신전남교육의 철학과 정책을

학교 현장에 구현할 수 있는 인재 선발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존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 관행에서 탈피해 여성국장 임용, 교장 경력 없는 교육연구관의 본청 과장 임용 등 역량 중심의 인사를 과감히 단행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번 인사에는 혁신전남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철학이 있고, 학교 지원 중심의 전남교육 변화를 선도할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발탁했다.”면서 “전문성과 민주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혁신전남교육을 이끌어 전남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무안 몽탄중, 지역 사회 축하 속 졸업식

무안몽탄중학교는 지난 12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도서관에서 약식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학생들에게는 그 어느때보다 몽탄면이장단, 지역사회, 동문회의 사랑과 축하 속에서 풍성한 졸업을 하였다.

몽탄면 이장단에서는 졸업하는 14명의 학생들 전체에게 장학금 28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몽탄중을 졸업한 선배들의 모임인 몽탄중동문회 30만원, 몽우회 20 40만원, 몽탄중 16회 졸업생 일동 200만원을 그리고 몽탄중출신이면서 몽탄중운영위원장인 김옥우 50만원, 캠프밸리 500만원, 명산교회



6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몽탄면 이장단, 동문회, 지역 단체 등 마을 전체 모든 분들의 장학금 전달은 전교생이 새학기를 맞이하는데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안=이기성 기자

노동초, 제85회 졸업장 수여식 열려

노동초등학교는 2월 12일 수요일에 제 85회를 맞이하는 졸업장 수여식이 열렸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졸업식은 축소되어 진행되었지만 동문회 등 여러 노동 기관 단체에서 졸업식을 빛내는 장학금과 함

께 축하 메시지를 전해 왔다. 이날 졸업생들은 졸업 학사복을 입고, 의젓하고 듬직하게 졸업식장에 입장하였다.

5학년들이 준비한 뮤직비디오와 축하공연이 큰 호응을 얻었다.

보성=김덕순 기자

